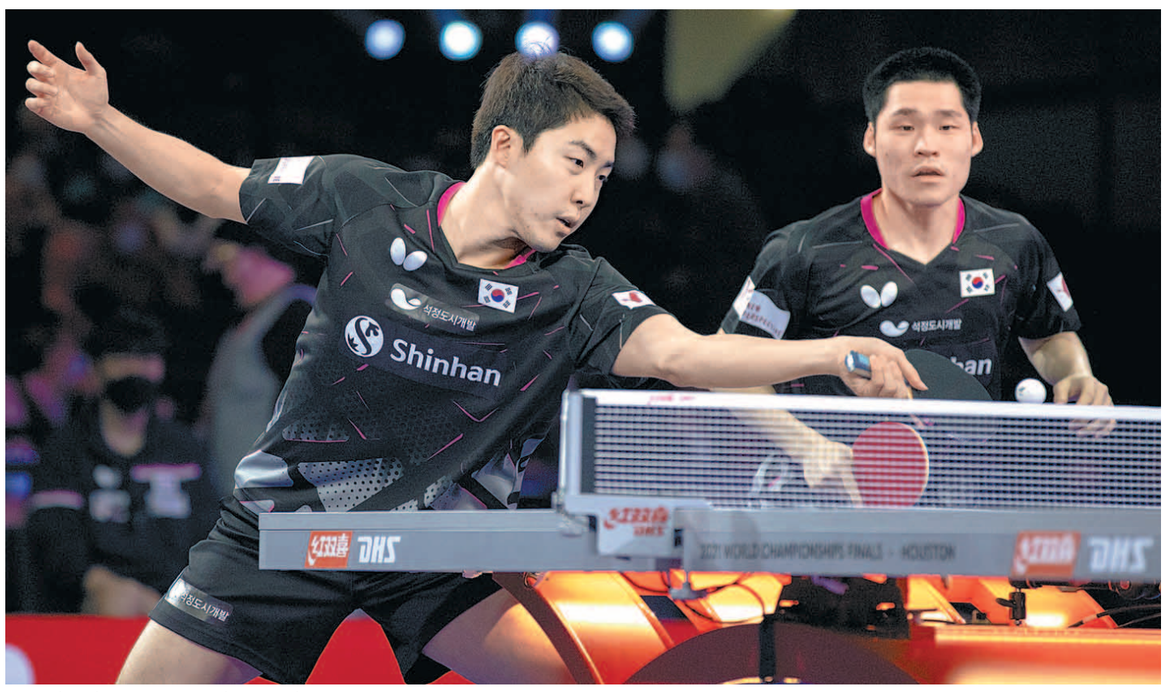
한국탁구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남자복식 결승 진출

# ‘銀 확보’ 장우진-임종훈 “즐기면서 경기”

## 한일전 도가미-우다에 3-1 역전승
## 스웨덴 카를손-팔크와 결승전 격돌


임종훈(왼쪽)-장우진이 29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202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남자복식 준결승에서 일본의 도가미 순스케-우다 유키야를 공략하고 있다. 3-1로 이겨 한국탁구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휴스턴(미 텍사스주) | 신화뉴시스

장우진(26·국군체육부대)-임종훈(24·KGC인삼공사)이 한국탁구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장우진-임종훈은 29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202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남자복식 준결승에서 일본의 도가미 순스케-우다 유키야를 3-1(8-11 11-4 11-9 11-7)로 꺾었다. 결승 진출로 은메달을 확보한 장우진-임종훈은 한국탁구의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한국탁구는 과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복식에서 동메달만 8개를 따냈다.

2017년부터 호흡을 맞춘 장우진-임종훈은 2018년 코리아오픈과 그랜드 파이널스 연속 우승을 계기로 한국탁구를 대표하는 남자복식조로 도약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종훈의 단식 16강 진출이 최고 성적일 정도로 이번 대회에서 남자탁구대표팀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장우진-임종훈이 복식 결승 진출로 자존심을 세워줬다. 장우진-임종훈은 아울러 10월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도가미-우다에 패해 은메달에 그쳤던 아쉬움도 말끔히 씻어냈다.

장우진-임종훈은 30일 결승에서 크리스티안 카를손-마티아스 팔크(스웨덴)와 금메달을 다툰다. 이들이 금메달을 따낸다면 한국탁구는 2015년 쑤저우대회 이후 6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첫 우승을 맛보게 된다. 쑤저우대회에선 양하은(포스코에너지)이 쉬신(중국)과 한·중 복식조를 이뤄 혼합복식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한국선수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1993년 구텐베르크대회 현정화의 여자단식 금메달 이후 처음이다.

1게임을 내준 장우진-임종훈은 곧장 평정심을 되찾아 11-4로 2게임을 따내 균형을 맞춘 뒤 여세를 몰아 3게임마저 이겨 역전했다. 심기일전한 장우진-임종훈은 4게임에서도 상대의 범실을 놓치지 않고 결승행을 마무리했다.

경기 후 장우진은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경기하는 매 순간 어려움이 많았는데, 즐기면서 한 덕분에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종훈은 “첫 게임을 내주고 당황했는데, 이겨내서 더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결승 상대가 두 번이나 중국을 꺾고 올라와 우리보다 기세가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큰 대회에서 잘한 기억이 많다. 상대의 변칙적 기술에 적응해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 최민정-남자계주, 쇼트트랙 월드컵 ‘금빛 엔딩’

〈4차〉

## 최, 여자 1000m 개인전 첫 금메달
## 남자대표팀, 올시즌 계주 첫금 성과

최민정

쇼트트랙대표팀이 월드컵 4차 대회 마지막 날 금메달 2개를 따내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최민정(성남시청)이 여자 1000m, 곽윤기(고양시청)-박인욱(대전시체육회)-김동욱-박장혁(이상 스포츠토토)이 남자 5000m 계주 정상에 올랐다.

최민정은 29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에서 막을 내린 2021~20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000m 결선에서 1분28초41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골인했다. 이로써 최민정은 올 시즌 월드컵 개인종목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건재를 과시했다. 부상을 딛고 일군 성과라 더 값지다.

최민정은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를 앞두고 여러모로 마음고생을 겪었다. 대표팀 동료 심석희(서울시청)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고의충돌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고, 1차 대회(중국 베이징) 여자 1500m 결선에선 1위를 눈앞에 두고 동료 김지유(경기일반)와 충돌해 넘어지는 불운을 겪었다. 부상 탓에 2차 대회에는 아예 출전하지도 못했다.

다행히 부상을 털고 복귀한 3차 대회(헝가리 데브레첸)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실전감각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선 우승까지 차지했다. 2바퀴 반을 남기고 킴 부탱(캐나다)에게 선두를 빼앗겼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절묘한 인코스 추월로 역전해 ‘역시 최민정답다’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남자대표팀의 5000m 계주 금메달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올림픽 쿼터가 걸려있는 마지막 대회의 최종전에서 포디움에 서며 감동을 더했다. 김동욱-곽윤기-박인욱-박장혁이 짝을 이뤄 나선 결선에서 6분46초940으로 우승했다. 올 시즌 월드컵 첫 계주 금메달이다.

‘맏형’ 곽윤기의 뒷심이 돋보였다. 캐나다와 엎치락뒤치락하던 대표팀은 결승선까지 3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2위로 밀리며 금메달과 멀어지는 듯했다. 올 시즌 남자계주 랭킹 1위 캐나다의 저력은 대단했다. 그러나 마지막 주자 곽윤기가 포기하지 않고 레이스를 펼치며 찰스 해믈린과 격차를 점점 줄였고, 결승선까지 반 바퀴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월에 성공했다. 해믈린과 접촉 없이 인코스를 완벽하게 파고든 뒤 간발의 차이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며 포효했다. 곽윤기는 격하게 환호하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타이거 우즈가 지난 22일 교통사고 이후 9개월 만에 풀스윙 샷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세계 골프팬들은 우즈의 복귀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진출처 | 타이거 우즈 인스타그램

# 풀스윙 시작한 타이거 우즈 공식석상에 모습 드러낼까

## 내달 3일 재단 이벤트 대회장 출현 기대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의 스윙샷 훈련 영상이 공개된 이후 그의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월 3일(한국시간) 타이거우즈 재단이 개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가 첫 공개행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대회는 타이거우즈 재단이 개최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이벤트 대회다. PGA 투어 정규대회는 아니지만 공식 대회에 포함되고 선수 성적은 세계랭킹에도 반영된다.

출전 선수 명단도 호화롭다. 디펜딩 챔피언 헨리크 스텐손(스웨덴)을 비롯해 콜린 모리카와, 잰더 쇼펄레, 패트릭 캔틀레이, 저스틴 토머스, 브라이슨 디샘보, 브룩스 켑카, 조던 스피스, 토니 피나우, 패트릭 리드, 대니얼 버거, 빌리 호셜, 웨브 심프슨(이상 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등이 출전한다.

하지만 이들의 우승 경쟁보다 더 큰 관심은 우즈가 대회장에 나타나느냐 여부로, 현재로서는 대회장 출현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즈가 이 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과 교통사고 중상을 입은 지 9개월 만인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이언 샷을 치고 있는 3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나아지고 있다(making progress)’는 짧은 글을 남긴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비록 출전선수 명단에는 우즈가 없지만 적어도 대회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테잎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딴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장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 (구입문의:063-232-5877)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해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딴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밀녹음시 유용), 반복재생기능,자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삭제기능, 음량조절기능, 이어폰 사용기능, 유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급형


(저가용) 보급형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63-232-5877 국제종합물산

음성증폭기, 작은 소리도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
귀가 잘 안들려 불편한 사람에 답답함 해소

소리가 잘 안들려 답답한 사람에게 깨끗하고 선명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제품 음성 증폭기가 출시되 희소식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조합물산 (구입문의 : 080-232-5866)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어짱 음성증폭기'가 바로 그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가 잘 안들려 불편하거나 TV를 시청할때 답답했던 사람, 전화나 핸드폰 통화시 선명한 통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교회나 대강당, 넓은 공간 등에서 강의, 세미나, 수업, 설교 등을 또렷하게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제품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잡음이 적게 회로가 설계되어 큰 소음은 차단하고 보통음, 저음, 중음, 고음 등 4가지 음색을 사용자가 설정하여 작은 소리를 크게, 큰 소리를 적당하게 볼륨을 조절하여 자유자재로 음량을 직접 맞추어 들을 수 있다. 기존 음성증폭기와는 달리 특정 음역대역만을 선택하여 듣거나 한쪽 귀에만 꽂아서 들을 수 있고 양쪽귀에도 꽂아서 들을 수 있다. 또한 약2시간 정도의 충전으로 2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의 크기는 길이 5.4센티 넓이가 1.5센티 두께가 1.2센티로 매우 작고 가벼운 블루투스 형태로 귀에 꽂아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특히 수백만원이 넘는 수입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잡음 등이 거의 적어 국내 생산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대화할 때 큰 불편을 느꼈던 김모(65)씨는 "일상 대화나 TV시청 넓은 강당 교회 등에서 설교 시 귀가 잘 안들려서 답답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 후부터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 답답함이 해소되었다"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사용방법은 블루투스를 한쪽 귀에 꽂아 사용한 방법과 스테레오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이 제품 판매의 한 관계자는 "음성증폭기는 IT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디지털 전자제품이며 의료기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